

전경린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 고찰

나 선 혜 *

〈목 차〉

- I. 서론
- II.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의한 여성 정체성 형성
- III. 하위주체로서의 성장과 정체성 훼손
- IV. ‘다시쓰기’를 통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해체
- V.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과 성장
- VI. 결론

◦ 국문 초록 ◦

본고는 전경린의 장·단편 소설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여성 인물들의 정체성 훼손 양상과 함께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주체적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전경린의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타자의 욕망에 따른 왜곡된 정체성을 형성한다.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이미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여성 인물들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 없이 근본적인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 인물들은 가부장제의 하위주체로 성장하며 정체성을 훼손당한다. 제도에 편입할 수 없는 하위주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거세당하여 말하지 못한 채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전경린은 이와 같은 여성 인물들의 정체성 훼손 양상을 예리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의 폭력에

* 순천대학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아가 이를 해체·수정·전복하고자 한다.

전경린은 여성 인물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다시쓰기’를 함으로써 기존 남성 중심의 문학 작품에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폭력이 숨겨져 있음을 폭로하고 그 의미를 전복한다. 이는 기존 남성 중심적 담론의 성 차별성을 고발하는 데에서 나아가 여성에게 주체적인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작가는 여성성·모성성의 긍정과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유롭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새로운 여성 정체성을 제시한다. 어머니이자 여성이기도 하고 욕망의 희생자이자 주체이기도 한 이중적 존재의 여성을 형상화함으로써 전경린은 근대적 주체의 독백적인 연술을 해체하고 진정한 여성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전경린의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변형하고 재영토화 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 전경린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여성 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피는 것은 작가의 문학에 대한 새로운 가치 탐색을 위해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또한 여성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작가의 문학정신을 새롭게 규명해 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 주제어: 전경린, 이데올로기의 호명, 여성하위주체, 여성 정체성 훼손, 다시쓰기, 새로운 여성 정체성

I. 서론

근대 산업화 이후 출현한 주체라는 개념은 오직 남성에게 한정하여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성과 합리성, 남성성으로 구축된 근대의 역사에서 여성은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채 ‘타자적 존재’이자 소외된 ‘하위체’로 규정되었다.¹⁾ 이

1) 보부아르는 여성이 ‘어떤 질적인 결여를 가진 존재’, ‘불안정한 남자이며, 우발적인 존재’, ‘자율성이 없는 존재’, ‘남자로 인해 규정되어지는 존재’로 인식되어 억압과 소외를 경험한다고 말하였다. (Simone de Beauvoir, 조홍식 옮김, 『제2의 성』 (상), 을유문화사, 1993, 13-14쪽) 프로이트와 라캉 또한 여성의 주체성은 남성에게 귀속될 때만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프로이트는 여성성의 존재 의미를 오로지 아이의 재생산에만 관련짓고 있다. 그렇기에 여성은 사회의 새로운 성원의 생산에 관련되어서만 그 의미를 가진다고 보며 여성의 리비도는 남성 문화에 의해 재생산의 기능으로만 강제적으로 행해지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오이디푸스 이야기 또한 남성만의 이야기이며 이 이야기 속에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생산될 뿐이다. 그렇기에 프로이트는 이 세계에서 여성에게 할당된 주체의 자리는 없다고 본다. 라캉 또한 세계에서 남성은 권력을 가진 존재로 그 역할이 주어

에 따라 여성들은 남성 중심적 문화 아래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가정이라는 사회적 공간 속에 유폐된 채 혼돈과 환멸의 삶을 살게 되었다. 물론 19세기 이후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욕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도 여성들은 여전히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고 억압받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그 방식을 바꾸어 더욱더 교묘하고 견고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에 등장한 여러 여성 작가들 중에서도 특히 전경린(1962~)의 소설에는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의해 타자화되고 주변화된 여성 인물들이 주로 등장한다. 그들은 가부장제 질서에 의해 통제되어 정체성을 훼손당한 채 상처 입은 삶을 살아간다. 작가는 여성이 하위주체²⁾로서 경험하는 상실감과 우울함, 불안함과 고통을 예리한 문체로 그려냄으로써 가부장제의 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다시쓰기’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독해를 시도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 맺기’의 방식으로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새로운 여성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피동적인 타자의 위치에서 자발적인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해 나간다. 즉, 여성 인물들의 주체적 정체성 형성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배치된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변형하고 재영토화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전경린의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여성 인물들의 자기 인식과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자기 정립, 억압된 정체성의 해방 가능성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경린 소설에 대한 연구는 몇몇의 독자적인 논의³⁾를 제외

진 반면 여성은 권력의 영역에서 배제된 채 오로지 남성의 문화에 예속된 상태에서 그들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존재로 본다. (최종렬, 『타자들』, 백의, 1999, 93-117쪽)

- 2) 스피박은 ‘젠더화된 서발턴’으로서 ‘여성하위주체’를 주목했다. ‘하위주체’는 사회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지배적 담론체계로는 포섭할 수 없는 이들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스피박은 이를 “여성과 피식민지인 같은 ‘엄격한 계급분석’의 환원적 용어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적 정체성과 투쟁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한 용어로 보았다. (Stephan Morton, 이운경 옮김, 『스피박 넘기』, 엘피, 2005, 91쪽)

- 3) 나선희, 「전경린 소설에 나타난 탈식민화 양상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하고 대부분 섹슈얼리티에 관한 논의⁴⁾가 주가 되어 왔으며, 그 외에 탈주와 위반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논의⁵⁾, 모성성에 관한 논의⁶⁾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억압되고 왜곡되어 온 여성성 혹은 여성 정체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해부함으로써 문학 내부에 숨겨져 있던 여성적 가치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을 살피는 데 있어서 주로 ‘금기

-
- 박선화, 「전경린의 여성성장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송은미, 「전경린 단편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 인식 양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4) 김형중, 「과장되게 여신을 찾다 : 여성작가들의 최근 장편을 중심으로」, 『문학동네』 통권37호, 2003.
- 신승엽, 「벗어날 수 없는 일탈, 머무를 수 없는 定住: 전경린·한창훈·공선옥 소설을 통해 본 90년대 소설의 길찾기」, 『창작과비평』 통권104호, 1999.
- 심진경, 「불륜의 서사, 여성 문학과 섹슈얼리티」, 『여성, 문학을 가로지른다: 심진경 비평집』, 문학과지성사, 2005.
- 이재복, 「여성의 몸은 이야기함으로써 존재한다: 전경린의 <나르시스 누와르>와 배수아의 <말 걸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를 중심으로」, 『세계의문학』 통권102호, 2001.
- 차원현, 「바람피우기의 세 방식: 21세기에 바라본 최근 한국소설에 관한 성찰」, 『세계의문학』 통권102호, 2001.
- 최성실, 「섹슈얼리티의 두 얼굴: 오정희, 전경린, 이평재」, 『동서문학』 242, 2001.
- 황종연, 「이졸데의 손녀들, 그들의 불륜의 소설」, 『문학동네』 겨울호, 1996.
- 5) 김미현, 「존재론적 변신과 초월의 수사학」, 『여성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 김은정,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 해체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화선, 「동화와 페미니즘의 만남: 전경린의 『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여성성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통권8호, 2002.
- 류은숙, 「여성소설에 나타난 <집>의 의미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철화, 「역사로부터의 탈출과 역사의 도파: 90년대 소설의 행방과 새로운 작가들」, 『동서문학』 통권250호, 2003.
- 6) 김경희, 「한국 현대소설의 모성성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백수진, 「1990년대 이후 등단한 여성 작가들의 소설 연구: 여성, 아내, 어머니의 층위에서 본 여성의 삶과 의식」,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위반'이나 '일탈'만을 주요 범주로 부각시키는 탓에 여성 인물의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본고는 전경린이 '다시쓰기'와 '타인과 관계 맺기'를 통해 근대적 주체의 독백적인 언술을 해체하고 새로운 여성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작가는 여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작품을 재해석하는 '여성으로서의 독해'를 시도함으로써 기존 남성 중심의 문학 작품에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폭력이 숨겨져 있음을 폭로하고 그 의미를 전복한다. 또한 타인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자유롭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새로운 여성 정체성 형성의 방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경린의 단편 「새는 언제나 그곳에 있다」, 「염소를 모는 여자」, 「환과 멸」, 「안마당이 있는 가갯집 풍경」과 장편 『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황진이』, 『엄마의 집』을 기본 텍스트⁷⁾로 하여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여성 인물들이 어떻게 해방되는지 그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이 남성 중심적인 이데올로기 아래 형성된 수동적 주체를 전복하고 새로운 여성 정체성을 내재화하여 능동적인 주체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피는 것은 전경린의 소설이 열어 놓은 실천적 여성 문학의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의한 여성 정체성 형성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가 '호명'(呼名·interpellation)⁸⁾이라는 행위를 통해 개

-
- 7) 전경린, 「새는 언제나 그곳에 있다」, 『염소를 모는 여자』, 문학동네, 1996.
 —, 「염소를 모는 여자」, 『염소를 모는 여자』, 문학동네, 1996.
 —, 「환과 멸」, 『바닷가 마지막 집』, 생각의나무, 1998.
 —, 「안마당이 있는 가갯집 풍경」, 『염소를 모는 여자』, 문학동네, 1996.
 —, 『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문학동네, 1998.
 —, 『황진이』 1·2, 이룸, 2004.
 —, 『엄마의 집』, 열림원, 2007.
- 8) 호명은 라캉의 상징적 동일화와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 동일화는 상징적 질서 내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 혹은 장소에 대한 동일화이다. 이것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자리를 떠맡는 것

인들을 주체들로 구성하고 그리하여 지배 체제의 재생산을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즉 개인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타자의 욕망에 따른 ‘특정한’ 또는 ‘왜곡된’ 정체성을 형성한다.

특히 여성의 본분을 규정하는 여성 명명들과 호명 행위는 남성 우위의 이기적 사고방식을 분명히 담고 있다.⁹⁾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호명 행위 아래에서 여성은 늘 남성의 시선에 포획된 욕망의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집안에 갇혀 주어진 본분만을 수행하고 침묵해야 하는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정체성을 부여 받게 된다.

전경린은 호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작품 곳곳에서 유년 시절에 주어진 이름의 의미와 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성 인물들의 모습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내 이름은 이미나. My name is MINARI. 중학생이 되어 세 번째 영어 시간 짝이었을 것이다. 아직 서로 이름도 알 수 없었던 낯선 단발머리 여자애들은 가르르 웃어댔다. 그로부터 나는 미나리로 불린다. 미나리. 스물세 살의 청년이었던 남편은 나의 별명에 열광했다.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그는 어쩌면 누군가를 향해 미나리라고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닐까. 미나리라고 부르면 찜찜하고 연한 이미지가 이빨 사이에서 아삭 씹힌다고 했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미나리라고 부른다. 그것은 여자에 대한 그의 취향인지도 모른다. 그가 미나리, 라고 부르면 나는 여전히 세 번째 영어 시간의 단발머리 중학생인 것처럼 느껴진다. 유순해지는 느낌하면서 동시에 너무 작은 스웨터를 끼입고 있는 것 같은 불편한 느낌……. 딸도 가끔 미나리 엄마라고 부른다. 아주 화가 났을 때나 아주아주 기분이 좋을 때(「새는 언제나 그곳에 있다」, 216-217쪽).

이다. 이러한 상징적 동일화를 통해 주체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상징적 위임을 떠맡게 되고 그것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게 된다. (J. Lacan, *Ecrits : A Selection*, trans. by A. S. Sheridan, Norton, 1977, 22-23쪽, 김정숙, 『한국현대소설과 주체의 호명』, 도서출판 역락, 2006, 27쪽, 각주 재인용)

- 9) 예컨대 과부(寡婦) 명명은, 여성은 다만 종속적인 존재에 불과한 ‘부존재적 존재’라는 남성주의적 인식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남편이 없는’ 부인을 ‘과부’라고 한다. 이 용어는 존재의 주체가 부인이 아니라 남편이다. 존재해야 할 남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과부이다. ‘(남편) 없는 부인’, 존재를 상실한 부존재인 것이다. 미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명명인 세요(細腰) 또한 성적 유희를 충족시켜 주는 여성에게 남성이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명명들을 분석해 보면 모두 주체적인 존재가 아닌 남성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도구로서 존재의미를 규정했음이 드러난다. 고은미 외, 『여성문학의 이해』, 태학사, 2007, 130-136쪽.

위의 문면에서 화자는 수업시간에 ‘미나리’란 이름으로 호명됨으로써 웃음거리가 된 부끄러운 기억을 안고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화자는 그 이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미나리’로 호명될 때마다 “너무 작은 스웨터를 꺼입고 있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낀다. 남편과 아이는 그들이 원할 때마다 그녀를 ‘미나리’라 부르고 그녀는 그것이 내포하는 “쌈싸름하고 연한 이미지”에 따라 주체화된다. 즉, ‘미나리’란 이름을 부여받음으로써 화자는 유순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그것을 통해 특정한 정체성을 획득하는데, 이는 결국 화자를 구속하는 하나의 억압 기제가 될 수 있다.

나, 윤미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 이름을 되묻곤 했었다. 미소? 입가에 제각각 나름대로 미소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라니……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었다. 아버지는 어찌자고, 이 심란한 생을 향해 이토록 우화적인 이름을 붙여 나를 내놓았을까? 아마도 아버지는 생이 이 이름에게 조금은 더 관대하기를 바랐던 것인지 모른다. 아니면 이 이름이 생에 대해 관대하기를 바랐을 수도 있겠다. 그것도 아니면 생이란 것의 우스꽝스러움을 일찌감치 꿰뚫어 보셨던 것일까…… 아버지의 염원 덕분인지 몰라도 어쨌든 나는 내 식대로는 관대한 편이다. 이 생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해. 그러니 제발, 이 참을 수 없는 생도 내게 조금은 관대해 주었으면 좋겠다(「염소를 모는 여자」, 7쪽).

위의 화자는 아버지에게 의해 ‘미소’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¹⁰⁾ 이 공허하고 우화적인 이름에는 내가 생에 관대하거나, 생이 내게 관대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염원이 담겨 있다. 결국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화자는 권태롭고 심란한 자신의 삶에 저항하지 않고 이를 건디며 살아간다. “미궁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은 소극적인 상상이나 발화에 그칠 뿐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아버지에게서 부여 받은 이름이 삶을 감시하고 존재 그 자체를 압도하는 것이다. 즉, 아버지의 이데올로기 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연

10) 박기범을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은 ‘미소’라는 이름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주목했다. ‘미소’는 ‘소리 없이 빙긋이 웃는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심란한 생에 대한 헛헛한 웃음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여성 서술자가 느끼는 갈등과 곤란함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다. (박기범, 「전경린의 「염소를 모는 여자」론」, 『청람어문교육』 제2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359쪽)

어가 화자의 의식을 지배하고 그에 따라 화자의 삶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호명 행위는 여성 인물들을 타자의 담론에 동일시시킴¹¹⁾으로써 여성들이 자신의 본질이나 욕망과는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이미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여성 인물들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근본적인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들은 스스로에게 실존적 물음을 던지거나 가출이나 자살, 죽음 등의 일탈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일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이처럼 소설 내에서 작중인물에 대한 호명 행위가 어떤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호명된 주체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자체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폭력에 대한 해체·수정·전복의 다원적 시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III. 하위주체로서의 성장과 정체성 훼손

스피박은 지배 질서에 의해 배제되고 주변화되어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들을 ‘여성하위주체’라 하였다. 가부장적 제도 아래 여성은 남성의 하위주체로서 통제되고 배치된다. 제도에 편입될 수 없는 하위주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거세당하여 말하지 못한 채 우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전경린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가부장제 아래에서 하위주체로 성장하며 정체성을 훼손당한다. 이들은 탄생 이후 성장하는 과정 내내 철저히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소외된 채 하위주체로서의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11) 여기에서 타자란 배제되거나 억압된 존재가 아닌 라캉이 개념화한 상징계로서의 타자이다. 이는 개개인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서 언어 혹은 기표의 자리요, 주체의 타자인 무의식이다. 즉 그것은 개개의 개체가 포섭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주체-인간의 자식-가 될 수 있는 질서라는 점에서 푸코가 말하는 동일자의 일종이다. 타자에 대한 내적인 동일화 혹은 동일시를 통해 개인은 상징적 질서 아래 ‘신민화’된다. (이진경, 『철학의 외부』, 그린비, 2002, 47-68쪽)

12) 김정숙, 앞의 책, 200쪽.

이러한 여성의 하위주체로서의 삶은 「환과 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환과 멸」에서는 여성 인물이 가부장제 사회의 하위주체로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지워진 억압과 폭력에 의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그려진다.

진은 어릴 적 내내 머리카락이 귀밑에 닿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자에 같은 스포츠 머리에 앞뒤 쥘구였다. 진은 남자에 옷을 입었고 남자에처럼 등을 곧게 펴고 책상다리를 했으며 남자애들과 싸움박질을 해서 이기고 남자애들보다 더 짓궂고 개구져야 사탕을 받고 대견스럽다는 칭찬을 받았다. (...중략...)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진은 여전히 짧은 머리에 햇볕에 탄 피부, 자그마한 키에 다무지게 살이 붙어서 남자애와 여자애의 중간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쯤으로 자라있었다. 그 즈음 진은 엉뚱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고 설탕과 쌀을 훔쳐 먹었으며 언니들에게 자주 대들었고,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했고 비웃기 시작했다(「환과 멸」, 189쪽).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진’은 남성 우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주변 인물들에 의해 왜곡된 정체성을 부여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진’은 “가부장적 질서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본원적이지 못하다는, 여성의 존재론적 한계와 소외”¹³⁾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이는 아버지 대한 분노와 자신의 삶에 대한 환멸로 이어진다.

‘진’은 쌍둥이인 ‘미’를 통해 자신이 형성하지 못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받고자 한다. 즉, ‘미’는 ‘진’에게 있어서 동경과 사랑의 대상이자 더 나아가 또 하나의 ‘진’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이를 타인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진’의 삶에서 가부장제의 폭력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진’은 결국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자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사실 ‘진’의 죽음은 가부장제 아래 여성으로 태어나 자신의 성(性)과는 다른 정체성을 부여받았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의 체계가 제시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은 자신의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훼손당할 수밖에 없다.

「안마당이 있는 가갯집 풍경」에서는 어린 여자 아이가 자신이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여성이며 자신 또한 가부장제 사회의 하위주체로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3) 김정수,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235쪽.

쫓쫓쫓, 니가 고마 머스마로 태어나지, 아이고 너거 엄마가 고생이다.

엄마의 계원들이나, 아버지의 동료나, 어중간한 친척들이 우리집을 생각해준답시고 셋째나 넷째쯤에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수치심과 엄마에 대한 분노로 몸을 떨었다. 우리들은 모두 잘못 뽀뽀한 제비들처럼 쾅, 이었던 것이다(「안마당이 있는 가갯집 풍경」, 86-87쪽).

「환과 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혜’는 가부장제적 질서 아래에서 ‘딸’인 자신의 탄생이 결코 축하받지 못할 일이었음을 알게 된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니가 고마 머스마로 태어나지”라는 말로써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확인시키고 하위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즉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이들을 통해 여성 인물은 자신의 주변부적인 위치를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우기의 과일처럼 세월에 떠밀려 무럭무럭 자랐다. 그리고 그때 이후론 한 번도 더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나이들어갔다. 그런 때는 우리 일생에서 꼭 한 번뿐인, 강물 위로 마구 풀려나간 아까운 실타래처럼, 한 번뿐인 어느 한때인 것이다(「안마당이 있는 가갯집 풍경」, 110쪽).

자신이 가정과 사회의 하위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인혜’는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 그러나 자신이 어머니와 같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인혜’에게 노래와 춤이 함께하는 일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타자 혹은 하위주체로서의 삶에 대한 여성 인물들의 자기 인식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여성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자각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IV. ‘다시쓰기’를 통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해체

‘다시쓰기’는 지배 담론을 다시 뒤집어쓰는 대항 담론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이것은 지배 권력에 의해 구축된 세계를 해체하고 타자의 종속적인 위치를 독립적인 주체의 자리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

다. 전경린은 ‘다시쓰기’를 통해 지배 질서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주체로서 구성하고자 하는, 즉,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여성을 보여준다.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되었거나 추방당한 여성의 생명력, 활력, 적극성을 회복하려는 의지와 연결된다.

먼저 『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는 설화 「선녀와 나무꾼」에 대해 ‘다시쓰기’를 시도한 작품으로, 이 작품은 자유롭고 야성적인 여성성을 간직한 늑대 여인과 억압적이고 지배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선녀가 아닌 ‘늑대 여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작가는 늑대에게 여성성을 부여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워진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야성의 속성과 함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처음으로 아이들과 자신에게 묶여 있는 영혼의 탯줄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엄지손가락을 자른 남편의 고통과 걱정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의 자리에 누운 쇠약해진 시어머니의 가련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포박되어 있다고 여겼으나 이제 와서 보니 자신이 바로 포박한 그 질긴 줄이었습니다. 여자는 이미 훨훨 떠날 수 있을 만큼 세상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오히려 자신을 팔아 아무 가치도 없는, 나쁜 꿈과 같은 그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을 느꼈습니다(『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59-60쪽).

늑대 여인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까닭에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되면서 남편과 아이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다. 즉, 늑대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 후에야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가 나무꾼을 떠난 것과 달리 늑대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자신이 온 곳으로 되돌아가려 몸부림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는 ‘정’을 떠나지 않는다. “포박된 것도 나였으나 포박한 줄도 나였”음을 인정하면서 스스로가 선택한 삶을 살기 위해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늑대 여인의 선택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수동적이고 억압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향한 출발이자 기존의 억압에 대한 도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경린은 『황진이』에서도 역시 기존 남성작가들의 작품¹⁴⁾을 ‘다시쓰기’하여 ‘황진이’에 대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 황진은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에 순응하고 따르는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 기생이 되어 당당히 세상과 맞서며 운명 앞에 무너지지 않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기생으로 남기를 바라며 오히려 그 기생이라는 신분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에도 얽매이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았으며, 마침내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과 편견까지도 훌훌 벗어 던지고 영원한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제게 몸은 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밟으면서 길을 버리고 온 것처럼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제 몸을 버리고 여기 이르렀습니다. 사내들이 제 몸을 지나 제 길로 갔듯이 저 역시 제 몸을 지나 나의 길로 끊임없이 왔습니다. 길이 그렇듯, 어느 누가 몸을 목적으로 삼고 누가 몸을 소유할 수 있으며 어찌 몸에 담을 치겠습니까? 길이 그렇듯, 몸 역시 우리 것이 아니지요. 단지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이지요.”(『황진이』 2, 276-277쪽)

전경린이 창조한 황진이가 다른 황진이들과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지점은 위의 문면에서 드러난다. 이 작품 속의 황진이는 세속적인 집착, 예컨대 기생이라는 신분 따위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자신의 몸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경지로까지 나아간다. 마음을 통한 깨달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통한 보다 큰 깨달음을 얻어 절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여성의 몸은 주체적인 욕망에 의해서 형성된

14) 황진이를 다룬 역사소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태준, 『황진이』, 동광당서점, 1946; 정한숙, 『황진이』, 정음사, 1955; 박종화, 「황진이의 역천」, 『새벽』, 1955년 11월; 안수길, 『황진이』, 홍문각, 1977; 유주현, 『황진이』, 범서출판사, 1978; 정비석, 『옛날옛적에 한 여자-옷을 벗은 황진이』, 남향문화사, 1982; 최인호, 『황진이』, 동화출판공사, 1986; 김남환, 『황진이와 달』, 복지문화사, 1986; 최정주, 『황진이』, 산신각, 1993; 김탁환, 『나, 황진이』, 푸른역사, 2002; 홍석중, 『황진이』, (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02. (고명철, 「‘황진이 서사’를 다룬 남과 북의 역사소설, 그 허구적 진실 : 홍석중과 김탁환의 ‘황진이 서사’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제16호,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45쪽, 각주 재인용)

것이 아닌 남성의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이에 전경린은 여성의 시선에서 ‘다시쓰기’를 하여 식민화된 여성의 몸을 전복시키고자 했다. 즉, 작가는 자기와 차이가 있는 타자들의 몸을 수용하고 긍정함으로써 “새로운 몸의 윤리학”¹⁵⁾을 실천하는 황진이의 모습을 통해 여성들의 새로운 정체성 탐색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이처럼 전경린은 설화 「선녀와 나무꾼」, 소설 『황진이』에 대해 ‘다시쓰기’를 함으로써 여성 인물에 대한 남성 중심적 독해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해체하려 한다. 작가의 의도적인 ‘여성으로서의 독해’는 기존 남성 중심적 담론의 성 차별성을 고발하는 데에서 나아가 여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과 성장

전경린은 사적 영역의 탈영토화와 여성 육체의 탈영토화라는 이중 전략을 통해 새로운 여성 정체성의 구성을 시사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사적 영역의 탈영토화는 사적 영역을 가사·육아가 이루어지는 폐쇄된 공간이 아닌, 자기 성찰의 열려진 공간으로 재영토화하는 방식이나, 사적 영역 자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성 육체의 탈영토화는 제도화된 여성성·모성성의 거부,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모성 경험의 복원이나 여성 섹슈얼리티의 회복과 같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¹⁶⁾

15) 과거 여성의 몸은 남성의 시선에 의해 지배되는 욕망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여성 작가들이 여성의 몸이 억압이 새겨지는 공간이자 해방과 새로운 질서 창출의 가능성을 머금고 있는 양가적인 공간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 작가의 작품들에서 여성의 몸은 타자와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개방적 공간이나 여성적 생명력이 펼쳐지는 순환적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인식되는 몸은 포스트모던 문화 시대에 강조되는 이미지로서의 몸, 보여지는 아름다운 몸, 그래서 피상적으로 소비되는 몸과도 차원이 다르다. 새로운 논의에서 강조되는 몸은 소비적인 이미지로서의 몸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패러다임으로서 21세기를 이끌 새로운 윤리를, 새로운 정치를 위한 기반이 될 만하다. (김양선, 『허스토리: 문학』, 새미, 2003, 106쪽)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영토화와 여성 육체의 탈영토화의 이중 전략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고 성장하는 여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엄마의 집』이다. 『엄마의 집』에는 가부장적 질서 아래의 ‘집’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을 마련한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그녀는 “엄마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처녀의식을 간직하고 사는 새로운 엄마들의 이름”¹⁷⁾인 “미스 엔”으로 불린다. 그녀는 연인과 연애를 하는 등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면서도, 모성을 자신의 긍정적인 자질로서 받아들인다. 즉, 『엄마의 집』에 나타난 모성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성’이 아니라 자신을 “조금씩 더 큰 엄마”로 성장하게 하는 모성¹⁸⁾으로, 여성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하나의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

“엄마에겐, 너와 이 집이 너무나 중요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낯선 곳으로 와 몇 년 동안 원룸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할 때, 난 자신에게 이렇게 독려했어. 지금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해내야 할 일만 생각하자. 그것이 막다른 곳에서 나가는 길이야. 일하는 한, 난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다.”(『엄마의 집』, 264쪽)

엄마는 자신만의 집을 갖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출의 완성은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일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 구한 집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윤리 위에 구축된 집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집을 구하기 전에 타인에게 주었던 무관심과 상처, 혹은 이기적 자기 탐닉과 무관한 집이 마련되었을 때 그녀는 자유롭고 온전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¹⁹⁾ 즉, 새로운 여성 정체성 형성은 기존의 제도화된 사적 영역을 해체하고 탈영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타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엄마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 엄마는 헤어진 전남편에게 연민과 공감의 태도를 유지하고, 전 남편이 재혼해서 얻은 딸 승지를 거들 뿐만 아니라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에서 동요하는 딸 호은을 너그럽게 인정한다. 호은이 엄마의 애인을 대하는 태도, 엄마

16) 나선훈, 앞의 논문, 42쪽.

17) 전경린, 『엄마의 집』 작가의 말, 열림원, 2007, 299쪽.

18) 박선훈, 앞의 논문, 106쪽.

19) 김형중, 「페넬로페의 후일담」, 『엄마의 집』 해설, 열림원, 2007, 288쪽.

의 애인 최민경이 호은과 승지를 대하는 태도 역시 전통적인 가족 범주 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전혀 새로운 윤리를 실현한다. 딸은 엄마의 연애를 축복해주고, 엄마의 애인은 애인의 딸을 그리고 애인의 딸도 아닌 중학생 소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그리고 진지한 대화 상대로 대한다. 이처럼 ‘엄마의 집’은 엄마와 호은과 승지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고, 이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엄마의 애인이 곁에 있는, 평온하고 다정한 공간이다. 물론 그들 사이에도 서운함이나 질투가 없진 않지만, “가족이 이긴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며 족쇄를 채우고 각자가 가는 길에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좀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는 ‘엄마의 집’은 무척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영원히 입을 꼭 다문 조개 같이 자기 자신”이었던 ‘한 여자’가 “사랑스러운 사람들 뿐 아니라, 시시하고 고약한 사람들이나 가여운 것들에게도, 혹은 지리멸렬하고 역겨운 일에 처했을 때”도 마치 그 전부를 “내 뱃속으로 지나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주체로 거듭난다.

우리 사회에서 ‘엄마’는 헌신과 인내의 이름으로 성적·사회적 정체성을 박탈당하는 존재이므로 주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이는 떨쳐버려야만 할 운명의 굴레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경린이 『엄마의 집』 이전의 작품에서 다룬 여성의 정체성 문제에는 대부분 ‘엄마의 목소리’는 삭제되고 없다. 여성 주인공들은 주로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열망하거나, 불륜과 같은 일탈적인 성적 관계를 통해 모성적 삶에 대한 거부를 드러낸다.

그러나 『엄마의 집』에서는 모성적인 동시에 여성적이고, 헌신적인 동시에 이기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 육체의 진정한 탈영토화를 이루어 낸다. ‘윤진’이 어머니이자 여성이기도 하고 욕망의 희생자이자 주체이기도 한 이중적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게 된다. 이처럼 모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단순히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개인적 차원의 본능적 욕구에서 나아가 역사적·성적으로 억압되어온 여성 모두를 새로운 관계 맺기의 맥락 속으로 끌어안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 새로운 여성 정체성 형성 방식이라 할 수 있다.

VI. 결론

본고는 전경린의 장·단편 소설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여성 인물들의 정체성 훼손 양상과 함께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주체적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작가는 「새는 언제나 그곳에 있다」, 「엄소를 모는 여자」에서 여성 인물들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타자의 욕망에 따른 왜곡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모습을 잘 형상화하였다.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이미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여성 인물들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근본적인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호명된 여성 인물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폭력을 해체하고 전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과 멀」, 「안마당이 있는 가갯집 풍경」에서 여성 인물들은 가부장제의 하위주체로 성장하며 정체성을 훼손당한다. 제도에 편입할 수 없는 하위주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거세당하여 말하지 못한 채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타자 혹은 하위주체로서의 삶에 대한 여성 인물들의 자기 인식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여성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자각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경린은 ‘다시쓰기’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독해’를 시도함으로써 기존 남성 중심의 문학 작품에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폭력이 숨겨져 있음을 폭로하고 그 의미를 전복한다. 작가는 설화 「선녀와 나무꾼」, 소설 『황진이』에 대해 ‘다시쓰기’를 함으로써 여성 인물에 대한 남성 중심적 독해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해체하려 한다. 이는 기존 남성 중심적 담론의 성 차별성을 고발하는 데에서 나아가 여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작가는 여성성·모성성의 긍정과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유롭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주체적인 여성 정체성을 제시한다. 『엄마의 집』에는 사적 영역과 여성 육체의 탈영토화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고 성장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어머니이자 여성이기도 하고 욕망의 희생자이자 주체이기도 한 이중적 존재의 여성을 형상화함으로써 전경린은 근대적 주체의 독백적인 언술을 해

체하고 새로운 여성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경린의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변형하고 재영토화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 전경린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여성 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피는 것은 작가의 문학에 대한 새로운 가치 탐색을 위해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또한 여성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작가의 문학정신을 새롭게 규명해 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도서

- 전경린, 「엄소를 모는 여자」, 『엄소를 모는 여자』, 문학동네, 1996.
_____, 「새는 언제나 그곳에 있다」, 『엄소를 모는 여자』, 문학동네, 1996.
_____, 「안마당이 있는 가갯집 풍경」, 『엄소를 모는 여자』, 문학동네, 1996.
_____, 「환(幻)과 멸(滅)」, 『바닷가 마지막 집』, 생각의나무, 2005.
_____, 『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문학동네, 1998.
_____, 『황진이』 1·2, 이룸, 2004.
_____, 『엄마의 집』, 열림원, 2007.

2. 단행본 및 논문

- 고명철, 「'황진이 서사'를 다룬 남과 북의 역사소설, 그 허구적 진실 : 홍석중과 김탁환의 '황진이 서사'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제16호,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고은미, 『여성문학의 이해』, 태학사, 2007.
김경수, 『페미니즘 문학비평』, 프레스21, 2000.
김미현, 『여성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_____,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한길사, 1996.
김양선, 『허스토리의 문학』, 새미, 2003.
김예니, 「여성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주체화양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정숙, 『한국현대소설과 주체의 호명』, 역락, 2006.
김해옥, 『페미니즘 이론과 한국 현대 여성 소설』, 박이정, 2005.
김화선, 「동화와 페미니즘의 만남」, 『여성문학연구』 통권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남효정, 「김이설 소설 연구 :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여성하위주체의 몸을 중심

- 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명형대, 「소설 <황진이>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 박기범, 「전경린의 「염소를 모는 여자」 론」, 『청람어문교육』 제2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 박선화, 「전경린의 여성성장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손자희, 『한국 페미니즘의 문화지형과 여성주체』, 문화과학사, 2009.
- 송은미, 「전경린 단편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 인식 양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심진경,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 문학과지성사, 2005.
- _____, 『한국문학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6.
- 이진경, 『철학의 외부』, 그린비, 2002.
- 정혜경,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변모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최종렬, 『타자들』, 백의, 1999.
- 황국명, 「남북한 역사소설의 거리」, 『한국학논집』 제32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 Josephine, Donovan, 김익두 옮김,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9.
- Julia, Kristeva 외, 김열규 외 옮김,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 Maria, Mies, 최재인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 Simone, de Beauvoir, 조홍식 옮김, 『제2의 성』 (상), 을유문화사, 1993.
- Stephan, Morton, 이운경 옮김, 『스피박 넘기』, 앨피,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es of Female Characters Forming an
Identity in Jeon Gyeong-rin's Novels

Na Seon-hye

This study examined the patterns of female characters' identities being damaged by the ruling ideology and the processes of them forming a new independent identity to overcome it with Jeon Gyeong-rin's novels and short stories as basic texts.

In Jeon's works, the female characters answer the call of ruling ideology, thus losing their identities and forming a distorted one according to the desires of others. Having a need for the desires of others in a given place with their identities lost, the female characters cannot help feeling a constant fundamental deficiency throughout their lives. In addition, they grow up as subalterns in the patriarchal system and have their identities damaged. They lead a depressing and tragic life as subalterns, being alienated from their own identities thoroughly from birth to death. Women's self-awareness of life as others or subalterns and their self-establishment and possibilities of liberating their suppressed selves as autonomous individuals in Jeon's novels merits attention.

Jeon makes an attempt at "rewriting" to grant a new identity to her female characters, thus disclosing the discriminating and oppressive violence hidden in the old male-centric literary works and overturning their meanings. Her attempt is significant in that it reports on the gender discrimination of old male-dominated discourse and further grants an independent identity to women. The author also proposes a new female identity that becomes a free and whole being through the affirmation of

maternity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She dismantles the monologue discourse of modern subjects and searches for a true female identity by embodying women as dual beings between mothers and women and between the victims and subjects of desire.

In Jeon's novels, the female characters actively alter and re-territorialize their identities passively formed by the ruling ideology, thus forming new ones. Looking into the processes of female characters forming an identity to understand her novels will be a meaningful task to explore the new values of her literature. It will also be significant in that it will broaden the horizon of women's literature and shed new light on the literary spirit of the writer.

■ Key words: Jeon Gyeong-rin, call of ideology, female subaltern, damage to the female identity, rewriting, new female identity.

이 논문은 2016년 8월 10일 투고되어 2016년 9월 24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6년 9월 24일 게재 확정되었음.
